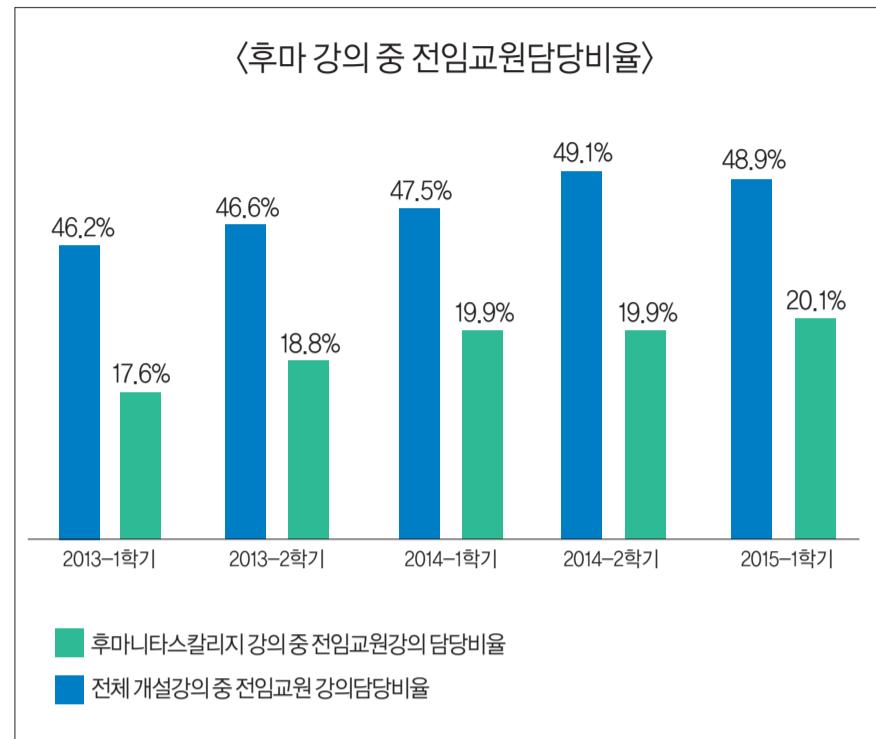


## 보도

## 후마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20.1% 강의수·전임교원수 복합적 원인



전임교원 강의비율 비교

백승철 기자 scho1357@khu.ac.kr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 2015학년도 1학기 기준 20.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강의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 48.9%임을 감안할 때 이 수치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지난달 30일 공개된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http://www.academyinfo.go.kr))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을 분석한 결과다.

후마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지난 2013학년도 1학기 17.6%에서 2014학년도 1학기 19.9%로 늘어났다. 이번 학기에 20.1%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체 강의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과 차이는 2013학년도 28.6%p에서 2015학년도 1학기 28.8%p로 오히려 벌어졌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전체' 강의담당비율도 낮게 나온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후마를 제외한 우리학교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60.6%로, 전체 비율대비 11.7%p 높다. 다른 경쟁대학과의 격차 역시 줄어든다. 교양교육 전담기관의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중앙대, 연세대와 비교해보면, 전체 강의를 대상으로 했을 때 두 대학과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격차는 10.8%, 5.5%p다. 반면 교양강의를 제외하면 4.3%, 1.8%p로 차이가 줄어든다. 서울캠퍼스 후

마 유정완 학장은 "우리학교 교양교육의 특성상 수강생이 소규모로 개설되는 강의가 많다"며 "수치로 보이는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학은 후마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 저조한 원인을 '강의수'로 규정해 조정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전임교원의 수' 자체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4학년도 기준 후마 소속 교원중 전임교원 비율이 22.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같은 기간 전체교원 중 전임교원의 비율인 41.6%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후마 A관계자는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을 높이기 위해, 배분이수교과에 대해서는 타 단과대학 전임교원 분들이 강의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무작정 타 단과대학 교수의 강의를 요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학장은 "후마에서는 비전임교원 중 일부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해달라고 대학본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대학본부가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 반드시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비전임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연구에 힘쓸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인력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학교가 강조하는 후마 교육에 대한 '투자'를 고민해 볼 때다.

##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입니다!" 우리학교의 '목소리', 대표전화 통신실

## 대표전화 상담원들의 이야기

최병현 기자 chbh1027@khu.ac.kr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입니다"

지난 8일 '서울캠퍸스 대표전화(02-961-0114) 통신실'을 찾았다. 전화가 쉴 새 없이 밀려들었다. 우리학교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각 부서로 전화를 연결하는 이곳은 본관 5층 가장 구석에 위치해있다. 위협적인 '접근금지' 글귀가 적혀있어 직접찾는 사람은 드문 그곳에서, 항상 상냥한 목소리로 안내하고 있는 정순희, 이상선 상담원을 만났다.

정순희 상담원은 1995년부터, 이성선 상담원은 2005년부터 우리학교 관리과 통신실에서 근무했다. 올해로 각각 근속 20년차, 10년차다. 긴 시간 일해온 이들은 가장 바쁜 시기로 입학시즌과 원서접수 시즌으로 꼽았다. 정 상담원은 "전화가 뜨는 점심시간대에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입시철에만 인력이 조금 부족하고, 평상시엔 노하우로 충분히 일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중간중간 전화는 계속 걸려왔다. 밀려드는 전화에 대해서는 두 상담원이 각각 다른 시각을 보였다. 정 상담원은 "자부심을 느낀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정 상담원은 "학생들처럼 직원도 우리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며 "경희대 다닙니다"라고 말할 때 그 소속감이 굉장히 좋겠다"라고 전했다.

인터뷰 중간중간 전화는 계속 걸려왔다. 밀려드는 전화에 대해서는 두 상담원이 각각 다른 시각을 보았다. 정 상담원은 "자부심을 느낀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정 상담원은 "학생들처럼 직원도 우리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며 "경희대 다닙니다"라고 말할 때 그 소속감이 굉장히 좋겠다"라고 전했다.

모두 "괜찮다"는 답을 반복했다. 하지만 '감정노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 상담원은 "질문에 시원하게 답을 못할 때, 가끔은 심한말을 하시는 분도 있다"며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목소리로만 소통하다 보니 그는 것 같다. 전화를 끊고 눈물 흘릴 때도 적지 않지만, 되도록 빨리 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보'를 파악하는 일도 쉽지 않다. 이 상담원은 교환업무를 "정보와의 싸움"이라며 "학교 행사와 같은 정보를 많이 알아야 한다. 학교 홈페이지와 교내 현수막을 꼼꼼히 살펴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문의전화가 올 때 직접 포털사이트에 검색해 답변을 해야 하기도 한 상황이다. 체계적인 정보공유가 아쉬운 지점이다.

어려운 일은 많지만, 이들은 "자부심을 느낀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정 상담원은 "학생들처럼 직원도 우리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며 "경희대 다닙니다"라고 말할 때 그 소속감이 굉장히 좋겠다"라고 전했다.

인터뷰 중간중간 전화는 계속 걸려왔다. 밀려드는 전화에 대해서는 두 상담원이 각각 다른 시각을 보았다. 정 상담원은 "자부심을 느낀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정 상담원은 "학생들처럼 직원도 우리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며 "경희대 다닙니다"라고 말할 때 그 소속감이 굉장히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런 자부심은 두 상담원이 더 충실히

일하게 하는 바탕이다. 정 상담원은 "미국 애틀란타에서 우리학교로 교환학생 오려는 학생이 전화를 걸어왔었다"며 일화를 이야기했다. "학교 주변에 방이 필요해서 부동산 정보를 물었는데 준비된 정보가 없었다. 지금은 알 수 없고 퇴근 후에 정보를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말한 후, 퇴근길에 직접 주변 부동산을 돌며 정보를 구해 전했다."

두 상담원이 구성원에게 바라는 점은 소박했다. 정 상담원은 "학생들이 학식, 복전, 취진처와 같은 줄임말을 사용해 당황했다.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내하기가 더 좋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 상담원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다"며 "서로 조금만 존중하고 친절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매번 목소리로만 만나는 두 상담원은 전화를 끊고나서 "친절하게 받았는지 걱정된다. 더 친절하게 할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할 만큼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 이런 이들의 노력을 배려하는 전화벨이 울리길 기대하며, 손에 꼽힐 만큼 자주 연락하는 '대학주보'부터 "더 신경쓰겠다"고 약속했다.



한 사람 더 들어가기도 좁은 공간에서 두 상담원은 10년째 함께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성선, 정순희, 상담원)

## 2015학년도 후기 언론정보대학원 신입생 모집

(석사과정) ● 모집학과 및 인원			
구분	학과	전공	모집인원
언론학석사 과정 (신입/편입)	저널리즘	신문·잡지 방송 광고 홍보	
	전략커뮤니케이션	스피치·토론 정치·마케팅 출판·저작권 대중예술 디지털영상	00명
	문화콘텐츠		

## ● 전형일정

구분	일정	장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5. 5. 26(화) ~ 6. 3(수)	방문접수/우편접수
전형일정(면접)	2015. 6. 13(토)	본교 청운관 613호
합격자 발표	2015. 6. 29(월)	언론정보대학원 홈페이지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료: 50,000원)

## (스피치·소통 전문과정)

## ● 모집대상 및 인원

모집대상	모집인원
경영학, 고위공직자 및 기업의 임원·정책분야 종사자 ·스피치·설득능력이 필요한 기업인·종사자, 스피치와 대화·설득관련 교육자 ·소통 능력 향상을 원하는 일반인	00명

## ● 전형일정

구분	일정	장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5. 6. 26(금)까지	방문접수/우편접수
합격자 발표	2015. 6. 30(화)	언론정보대학원 홈페이지

## ● 전형방법 : 서류전형(전형료: 40,000원)

## ● 교육장소 : 경희대 총동문회관 5층(종로구 권동동 소재, 안국역 도보 7분) 또는 경희대 서울캠퍼스

## ※ 모집인원에 따라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 (입학문의)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언론정보대학원 행정실 전화 또는 홈페이지 참조

## 전화 : 02-961-0560~1(청운관 6층)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청운관 606호

이메일 : hsb2520@khu.ac.kr 웹사이트 : <http://khu.communication.ac.kr>

## 2015학년도 후기 평화복지대학원 신입생 모집

## 평화복지대학원

The Graduate Institute of Peace Studies

- UNESCO 평화교육상 수상 기관
- 전원 장학금(학비, 숙식비, 교재비) 전액 지원
- 전 과목 영어로 강의
- 해외대학 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
- 해외 단기 인턴십 재정 지원
- 대학원 독립 캠퍼스

## ■ 모집과정 : 석사과정 (전액장학)

## ■ 모집전공 : 국제평화 / 아태지역 / 대안정치거버넌스

## ■ 전형방법 : 논술 및 면접

## ■ 원서접수기간 : 2015년 5월 11일(월) ~ 5월 20일(수)

■ 온라인 원서접수 : <http://gip.khu.ac.kr>

- 원서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 ■ 전형기간 : 2015년 5월 27일(수) ~ 6월 3일(수)

## ■ 문의처

• 이메일 [gip@khu.ac.kr](mailto:gip@khu.ac.kr)

• 문의전화 031-570-7012~6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 2015학년도 후기 국제대학원 신입생 모집

## 1. 모집분야 : 국제통상협력학과 / 국제개발협력학과 / 국제경영학과

## 2. 모집인원 : 석사과정 00명, 박사과정 00명

3. 지원자격 : 석사과정 : 국내·외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박사과정 : 국내·외 대학교 석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4. 전형방법 : 국제기초 지원자(석사) : 서류(40%), 영어인터뷰(40%), 영어작문서(20%)  
해외거주 지원자 및 박사과정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터뷰(60%)  
※ 해외거주 지원자 지원자(석사)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하며, 일자는 별도 통지5. 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15년 5월 19일(화) ~ 6월 5일(금)  
국내 거주자 인터뷰 및 영어작문서 : 2015년 6월 13일(토) 오후 12시 30분  
해외 거주자 인터뷰 : 2015년 6월 8일(월) ~ 6월 12일(금)

## 6. 합격자발표 : 2015년 6월 중

7. 제출서류 : 입학원서 (국제대학원 홈페이지 지원자 양식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양식 포함)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평균, 평점 및 백분위 성적 기재)  
총학년 2인 각 1부씩 (국문), 자우용(국문)  
졸업(영어)증명서 1부 (학위증명번호 기재)  
졸업학위 사본 1매 (3cm\*4cm)  
전형료 : 70,000원 (E-mail 및 우편접수 시 온라인 일금)  
※ 입금방법 : 하나은행 906-910002-76604 (경희대학교 국제캠퍸스)

## 8. 협력기관에 한함 : 개인이란 개인에게 한함, 학교에 대한 개인에게 한함

## 9. 국제대학원 행정실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행정실 (봉투에 '입학원서 제출' 기재)

10. 문의접수 : E-mail 접수 : [gsp@khu.ac.kr](mailto:gsp@khu.ac.kr)  
우편접수 : [446-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역삼동 1732